

투데이 칼럼

어느 나눔 영웅 6·25 참전용사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참전용사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고품으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 아흔의 나이에도 기부와 후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노병이 있다.

주인공인 손이선 참전용사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사무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귀래면의 저출산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그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2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청춘을 보낸 참전용사다.

지금은 고향에도 불구하고 이곳 일주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의 집은 귀래면 미륵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면사무소로 보통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한다.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려 가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거리 청소다. 문밖을 나서면서 집게와 봉투까지 준비해 일

터로 향한다.

손 할아버지는 일행 중 나이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마음은 웬만한 청춘 못지 않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거리의 쓰레기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깨끗이 청소한다. 이렇게 하루에 세 시간, 한 달에 열흘을 일한다. 한 달에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29만 원이다. 거리 청소를 통해 번 돈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쓰인다.

퇴근 후 돌아온 집에는 나눔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국가 유공자증서와 나라한 걸린 포창장도 있다.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틈틈이 후원한 내역들도 눈에 띈다.

마침, 오랜 시간 후원을 단체에서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감사장 전달을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할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울곧게 자라나도록 후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만 지난 7년간, 매달 6만 원을 기부해 왔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1952년 학도병으로 1년 2개월간 전쟁에 참전했다. 그런데 군적이 없었던 까닭에 1954년 입영통지서를 받고 다시 한 번 군에 입대하게 됐다.

4년간 복무한 뒤에는 회사원과 사업가로 치열하게 생업을 이어갔다. 60대 은퇴 이후엔 봉사과 기부로 삶을 살았다. 2년 전에는 나눔의 경험을 모아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기부는 2017년, 순직 소방관을 돕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이웃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모닥불이 되고 싶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 희망의 바람이 동료 참전용사

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6.25참전 유공자 모임인 '사랑의 모닥불회'의 김명순 할아버지를 만나러 원주시 산림면에 간 것이다.

손 할아버지는 '사랑의 모닥불회'를 통해 참전용사 후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어르신은 오랜 벗처럼, 반갑게 마주한다. 김명순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참무원으로 활약했다고 한다.

적지에 들어가서 주요 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맡은 부대였다. 전쟁터에서 청춘을 보낸 두 참전용사는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손 할아버지는 참전용사의 노고와 헌신이 후대에 값진 유산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고향 마을에는 손 할아버지가 20년 전 집 주변에서 발견한 '사격호'가 있다. 적군들이 전쟁하면 문막 쪽에서 이쪽으로 온다. 적이 이곳으로 내려오면 '사격호'에서 사격을 했다.

지금도 사격호에선 전투를 벌인 병사들을 추모하고 있다. 한 편에 선 200주의 무궁화를 심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있다. 손이선 할아버지는 스스로 나라의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웃과 나라를 향한 그의 진심이 주위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어느 훈련병 부모의 분노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여전하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아들이 숨진 부모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훈련병 어머니는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이자 고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런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딸 그대요. 가혹행위라고 봐요. 아이 다리의 인대가 다 터지고 근육이 다 녹았어요. 이거는 고문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당시 현장에 간부 두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시킨 거라면 시정명령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의 상태와 관련해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

기를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방치돼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다른 훈련병 아버지가 쓴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도 제출했다.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가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긴급 걱정된다는 문자의 정체

'긴급 걱정돼서 문자 드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문자다. 누군가에게 상담한 적 없는 경제 상황을 알아서 걱정해주면서 연락을 달라고 한다.

링크를 누르면 급등 종목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상품권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스팸 문자가 날아온다. 스팸 신고를 누르고 눌러도 번호를 바꿔서 계속 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은 스팸 문자의 월 평균량은 10.38통이었다.

이 같은 문자 스팸의 대다수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보내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의 서버를 둔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KISA와 경찰이 단속을 통해 스팸 문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해외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같은 불법 스팸이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생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KISA는 최근 스팸 문자를 보내는 발신번호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루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스팸 신고'가 된 발신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정리해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중계사'에 공유하는 것이다. 문자중계사는 이 리스트에 있는 번호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3개월 동안 차단할 예정이다.

KISA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범 운영해보니, 7만 4천여 개의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고 414만 건의 스팸 문자 발송이 차단됐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에는 불법 스팸이나 스팸, 보이스피싱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나 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사우디 하지 시작, 기도 마친 시각장애 무슬림들



지난 14일 새벽(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기도를 마친 두 명의 시각장애인 순례자가 안내인의 도움으로 그랜드 모스크에서 나오고 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 메카와 예디나에서 14일부터 정기 성지순례 '하지'가 시작했다. 사우디 당국은 전 세계에서 총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순례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하지는 무슬림이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로 올해는 19일까지 25일간 이어진다.

안보 협정 서명 후 약속하는 미-우크라이나 정상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블레트리에서 안보 협정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력 증강을 위해 10년간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방위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